

기아자동차(주)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 재료실험팀

이땅의 기계공업이 거의 전무하였던 1944년 “기계공업 발전을 통한 조국부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창업한 자동차 전문기업 기아자동차(주)를 방문하였다.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일찌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모범적인 正道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전문경영인 체제를 정착한 기아자동차(주)는 Sephia Credos, Sportage, Potentia 등 연간 100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진 승용차 전문 생산공장인 아산만 공장(연면적 100만평)과 각종 실험설비와 각종 단위공장들이 일관 생산 체제로 가동중인 연간 3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소하리 공장(연면적 24만평)을 거점으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도 생산 하

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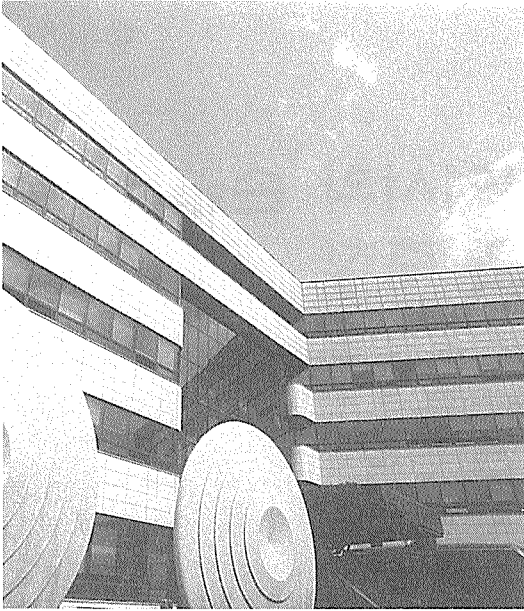
국내 최초의 자동차 종합공장인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내에 재료실험팀이 속해 있는 중앙기술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연구소 건물앞에는 자동차 바퀴를 연상케 하는 4개의 화강암 원형 석조물이 있는데 수레바퀴 외길 반세기를 걸어온 기아인들의 집념이 서려있다.

재료실험팀은 자동차에 적용되는 각종 재료에 대한 특성 및 적용성 연구와 신소재, 신공법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원들은 청결한 실험실, 수많은 각종 실험장비로 보다 좋은차, 편안한 차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산만 공장 전경



중앙기술연구소

실험실에서는 개발차량에 대한 각종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차종이 개발되기까지는 재료에서부터 단부품, Bench, 실차로 이어지는 각종 실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숫자와 기간, 비용은 실로 막대하지 않을 수

없다.

재료실험팀은 연구용 목적으로 UT, MT와 더불어 RT를 비파괴 실험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복잡한 형상 부품의 내부 구조 확인, 각종 주물 부품의 주조결함 판독, 주요 보안부품의 내구 Test후의 Crack 유무 확인, 용접제품의 용접상태 확인 및 신재료, 신공법 적용 부품 개발시 CAE 해석과 병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 함으로써 최적 조건을 연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비파괴 실험 이외에도 분석용으로 X선을 이용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금속재료의 결정구조 및 부품의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XRD(X선 회절분석장치)와 금속재료 및 Ceramics 재료의 성분 조성을 측정할 수 있는 XRF(X선 형광분석장치)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다.

이런 기아의 노력의 결과로 올해에는 기아가 독자 개발한 세피아가 세계 유수의 선진 자동차 Maker를 제치고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당당히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다.

외길을 걸으려면 최고이어야 한다.

기아자동차(주)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으며, 모든 사원이 편안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길을 걸으려면 최고이어야 한다”는 기아자동차 최고경영자의 말이 있는데, 이는 연구소 입구에 있는 자동차 바퀴를 상징하는 조형물에서 느낄 수 있듯이 거의 불모지나

다른 없던 자동차 산업을 시작해서 반세기 동안 오로지 외길을 달려왔고 앞으로도 외길을 달리겠다는 고집과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최고를 지향하는 기아인들의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및 문화를 선도하여왔고 앞으로도 세계로 그 위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기아자동차(주)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본다.